

[칠레] 2022년 칠레 구리산업 및 로열티 부과 입법 동향

등록일 : 2022-12-29

2022년 간 칠레 구리산업은 △가격변동성, △생산량 감소 등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으며, △상원 내 논의중이던 로열티 부과 법안이 정부측 과오로 투표가 지연된 바,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.

1. (구리가격 동향) 2022년 간 구리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이며, 최고 4.87미불/파운드(3월), 최저 3.18미불/파운드(7월)를 기록함.

○ 다만, 11월에는 △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, △중국의 '제로 코로나' 완화 및 구리수요 증가, △칠레, 페루 등 주요 국가의 구리 생산 감소, △구리 재고 감소 등으로 구리가격이 다소 상승세 유지

○ 칠레구리위원회(Cochilco)에 따르면, 2023년 구리 공급은 3.9%, 수요는 2.4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2. (구리산업 동향) 금년 △BHP(세계 1위 구리생산기업), △Minera Collahuasi(칠레 2위 구리생산기업) 등 칠레 내 주요 구리 기업들의 생산량이 일괄적으로 현저히 감소한 바, 이는 △구리 품위 저하에 따른 생산성 하락, △구리가격 하락, △국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등에 기인함.

○ 이에 따라, 구리 관련 세금 징수액 또한 현저히 감소하여, 2022.9월 기준 칠레정부의 관련 세입이 전년 대비 40% 감소

3.(로열티 입법 동향) 칠레 재무부는 지난 10월 △5만톤 이상의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 판매수익에 대해 1%의 추가 세금 부과, △운영수익 일부에 대해 8~26%의 세율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로열티 부과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며,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칠레 내 60% 구리생산기업에 동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.

※ 참고로, △2021년 기준 칠레 구리산업의 세수 기여율은 67%(이중 외국자본 89%)이며, 칠레는 △OECD 회원국 대비 (33.8%) 낮은 수준의 세율(20.7%) 및 페루, 캐나다, 호주,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과 유사한 실효세율(39%) 유지중

○ 칠레 정부에 따르면, 상기 관련 세입액은 약 4.2억 미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중 △1/3은 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자체에 배부, △2/3은 그린수소 산업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(R&D&I) 등에 투입될 예정

○ 다만, 상기 법안에 대해 최근 의회-정부 간 합의한 수정사항을 정부측이 최종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상원 내 로열티 법안 투표가 지연된 바, 의회는 정부측 과오에 대해 강하게 비판

4. (전망) 2023년 국제 구리산업은 e-mobility 및 에너지전환 추세에 힘입어 호조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, 칠레는 구리, 리튬 등 관련 광물자원의 주요 생산국으로서의 이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.

○ 로열티 부과 법안 관련, 칠레 구리업계의 경쟁력 악화 및 외국인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중인 한편,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는 내년 추진될 것으로 예상